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므로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잠30:5-6)

“Every word of God is pure: he is a shield unto them that put their trust in him. Add thou not unto his words, lest he reprove thee, and thou be found a liar.”(Proverbs 30:5-6)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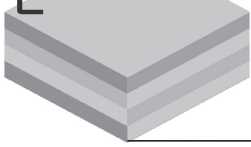
전도 가이드	3
하나님의 구원 계획	7
구원의 원리	15
개인 전도의 가능성	19
전도자의 조건	20
전도의 긴급성	22
전도자의 주의 사항	24
복음의 핵심	26
창조와 창조자	31
죄와 죄인	34
은혜란 무엇인가?	37
수확할 때가 가깝다	40
어떻게 대답할까요?	41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막16:15).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또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딤후4:1-2).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불가피하게 그 일이 내게 맡겨졌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고전9:16)






불신자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28:19-20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구절에는 네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전도자(Soul winner)¹⁾는 먼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하며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여 침례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 뒤에는 구원받아 신약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을 또 가르쳐서 그 새 신자 역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가르치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물고기를 낚는 데에도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하물며 사람을 낚는 데에는 얼마나 묘한 기술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진지한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 전도 대상은 성경이 이방인들이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다가갈 때는 무엇보다 먼저 창조자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진화론에 몰들거나 우상에 빠져서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면 그들은 전도자가 제시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므로 그분을 자기들의 신으로 혹은 신 정도로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도 바울이 행17:22-31에서 선포한 말씀을 숙지하고 창조자 하나님이 동시에 심판자이심을 밝히 보이시기 바랍니다.

1) 원래 성경적으로는 전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혼을 얻는 것’(soul winning)이라고 한다. 이는 성경이 사람을 혼(soul)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도라는 말이 이미 그런 용례로 쓰이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전도 혹은 전도자라는 말을 사용하려 한다. 전도는 대상자를 설득하여 자기 교회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옥에 빠져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출하는 것이다. 그 뒤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하도록 좋은 교회를 소개할 수 있지만 반드시 자기 교회로 데려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22 그때에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23 내가 옆으로 지나가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이 글 즉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이 새겨진 제단을 발견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 주리라. 24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殿)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며 25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26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지정하신 때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27 이것은 혹시 그들이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시니 28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의 시인들 중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29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인 만큼 하나님의 신격(神格)을 결코 기술과 사람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30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31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친히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므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행 17:22-31).

 가능하면 두세 사람이 같이 전도하러 가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먼저 돌아가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숙련된 전도자를 따라 나가서 어떻게 전도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낚는 데도 연습이 필요하며 기술이 필요합니다. 전도하러 가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책자들은 구령/전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책자이니 자주 읽고 그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두려움 없는 복음 전도」(존 C. 레녹스, 생명의 말씀사)
2. 「현대 전도에 대한 10가지 오해」(라이언 댄튼, 생명의 말씀사)
3. 「개인 전도의 기술」(월 맥레이니 주니어, 기독교문서선교회)
4.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가?」(R. A. 토레이, 베다니 출판사)
5. 「복음 전도」(J. D. 페인, 요단 출판사)

 다음에 제시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러 차례 읽고 숙지하여 거기 있는 순서대로 성경을 보여 주면서 복음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기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조금 익숙해지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 기계가 아니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이므로 절대로 녹음기나 로봇처럼 내 말만 늘어놓으면 안 됩니다.


☞ 독자께서 곧 알아차리시겠지만 각각의 제목 밑에 있는 성경 구절 중 첫 번째는 대개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진하게 절을 표시했음). 원하시면 직접 로마서로 가서서 그 구절들을 찾아 색연필 등으로 밑줄을 긋고 성경 자체를 보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이 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함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제시한 성경 구절 끝에는 다음에 인용할 구절을 적어 두면 그 부분 설명을 다 한 뒤 곧바로 그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 창조와 창조자¹⁾에서는 롬1:19-20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과 그 밑에 있는 구절들을 자세히 읽어 보면 누구라도 창조와 창조자를 잘 설명할 수 있으며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다가 ‘롬3:10-12; 롬3:23’이라고 조그맣게 적어 놓으시면 곧바로 그 다음 주제인 ‘2. 죄와 죄인’으로 연결됩니다. 물론 그 다음 연결 구절도 그런 식으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가지고 전도를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부분을 성경에 달린 줄로 마크해 두었다가 언제든지 원할 때에 쉽게 돌아와 성경의 다른 구절들도 보여 주면서 상대방에게 바른 복음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구절을 외울 필요가 없으며 단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하기만 하면 다음 구절들이 연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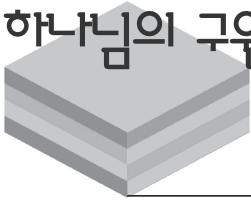
☞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5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까지 설명한 다음 상대방에게 구원받기를 원하는지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6번, 즉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회개란 죄를 미워하고 삶의 방향을 180도 틀겠다는 마음의 각오와 죄를 뉘우치는 것임을 보여 주고 상대방이 회개하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셔 들이겠느냐고 묻기 바랍니다. 그 뒤 “저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하고 물으면서 영접 기도(죄인의 기도)를 하게 하여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바랍니다.²⁾

2) 몇 명이 영접했다는 것을 교회에 알리기 위해 상대방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는데 영접 기도를 같이 하자고 강요하는 것은 심히 비성경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영접 기도를 같이 하자고 말하는 것은 심각하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전도자는 늘 기억해야 한다. 특히 전도 대상자가 전도자의 지인인 경우 전도자가 영접 기도하자고 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영접 기도는 아무 효력이 없다. 또한 상대방이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미 마음속으로 주님을 영접했을 경우에도 영접 기도는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인도하는 영접 기도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상대방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워 진지하게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할 때만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같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주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7번 ‘구원의 확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상대방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구원받았음을 무엇으로 알며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으며 잘 모른다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말이나 논리적인 설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 뒤 8번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때에는 이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선생님께서 살아가시면서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릴까요, 아니면 구원이 여전히 유지될까요?” 복음을 바로 이해한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큰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면서 비록 사람은 변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므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부분에 이르면 관계(relationship)와 교제(fellowship)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 번 아들이 되면 아버지와의 관계는 영원토록 유지되지만 아들이 죄를 지으면 상호 간의 교제가 깨짐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 깨진 교제를 회복하려면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면 됨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요일1:9). 또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므로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으며 선한 열매를 맺게 됨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 영원토록 구원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결코 구원을 잃을 수 없으며 영원토록 구원이 보장됨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장하기 위해 영의 양식과 보살핌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성장할 수 있으므로 매일 성경을 읽도록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며 곧장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나가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조와 창조자

- (a)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神格)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롬1:19-20).
- (b)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느니라.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나갔도다(시19:1-4).
- (c)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요1:3).
- (d) 이는 모든 것이 어떤 사람에게 의해 지어지지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히3:4).
- (e)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며(요1:10)
- (f)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장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시14:1).

2. 죄와 죄인

- (a)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롬3:10-12).
- (b)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
- (c)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전7:20).
- (d)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앞서가듯이 시들므로 우리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사 64:6).

- (e)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약4:17).
- (f)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막7:20-23).
- (g)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 나이다(시51:5).
- (h)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조롱하나 호의는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느니라(잠14:9).
- (i)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렘13:23).

3. 하나님의 심판

- (a) 죄의 값은 사망이나(롬6:23)
- (b)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9:27)
- (c)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갈6:7).
- (d)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고 있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리니(시9:17)
- (e) 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들에게는 화평이 없다, 하시느니라(사57:21).
- (f) 천사들이 나와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그들을 던지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마13:49-50).

4. 하나님의 사랑

- (a)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롬5:8).
- (b)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눅19:10).
- (c)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요3:16-17).

- (d)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아무에게도 없나니(요15:13)
- (e)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히9:22).
- (f)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고전15:3-4)

5.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얻는 구원

- (a)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10:9-10).
- (b)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5:24).
- (c)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므로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행16:30-31)
- (d)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2:8-9).
- (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요14:6).
- (f)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갈2:16).

6.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회개해야 한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죄들을 미워하고 포기한다.

- (a)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언오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행2:38)

- (b)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눅13:3).
- (c)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
- (d)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행3:19)

2.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a)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요1:12-13).
- (b)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3:15).
- (c)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요6:37).
- (d)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5:12).

3. 죄인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³⁾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 시간 제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으며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부디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를 도와주셔서 이 죄들을 미워하여 완전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원받기를 원하나 저의 노력이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저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그분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뒤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이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며 저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 들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다른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5쪽 각주 ‘영접 기도 주의 사항’ 참조

7. 구원의 확신

- (a)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5:24).
- (b)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10:13).
- (c)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요일5:13).
- (d)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후5:17).
- (e)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롬 8:16)
- (f) 그런 까닭으로 나 역시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어 온 분을 내가 알며 또 내가 그 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지키실 수 있는 줄 확신하기 때문이라(딤후1:12).
- (g)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1-3).

8. 구원의 영원한 보장

- (a)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롬8:1).
- (b)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요10:28).
- (c)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롬 8:29-31)

종교와 복음



영존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내세 혹은 영원에 대한 의문을 품고 산다.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의 사유의 핵심은 사람의 영원성에 대한 것이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구원 시스템이 존재한다. 하나는 대부분의 세상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으로서 한 사람의 선한 행위가 악한 행위보다 많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철학, 선행, 고행, 예배, 문화, 회생, 자선 등을 통해 스스로의 행위를 가지고 영원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노력한다. 성경은 이런 것을 가리켜 가인의 길이요, 종교라고 부른다(유11). 우리 주 예수님은 자신의 지상 사역 기간에 종교를 가르치는 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부르며 크게 꾸짖으셨다(마3:7; 23:33).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서신서에서 3회나 종교라는 말을 쓰면서 종교 체제 하에서의 부정적인 것을 기술하였다(행26:5; 갈1:13-14). 종교는 결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며 오히려 지옥 불 속으로 그를 밀어 넣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롬3:23). 모든 창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서면 다 더러운 존재로 판명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람 안에 있는 의는 모두 '더러운 누더기'라는 데 있다(사64:6). 그러므로 창조 세계의 외부로부터 오는 의 즉 사람을 지은 창조주께서 친히 베푸시는 의가 아니고는 그분 앞에 설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이다. 즉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스스로 사람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려고 십자가에서 죄로 인한 형벌을 다 담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었다가 사울 만에 다시 일어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그 뒤에 부활의 소망이 되신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고전15:2-4; 20-23).

사람의 문제



사람

죄의
구렁텅이

하나님

하나님의 해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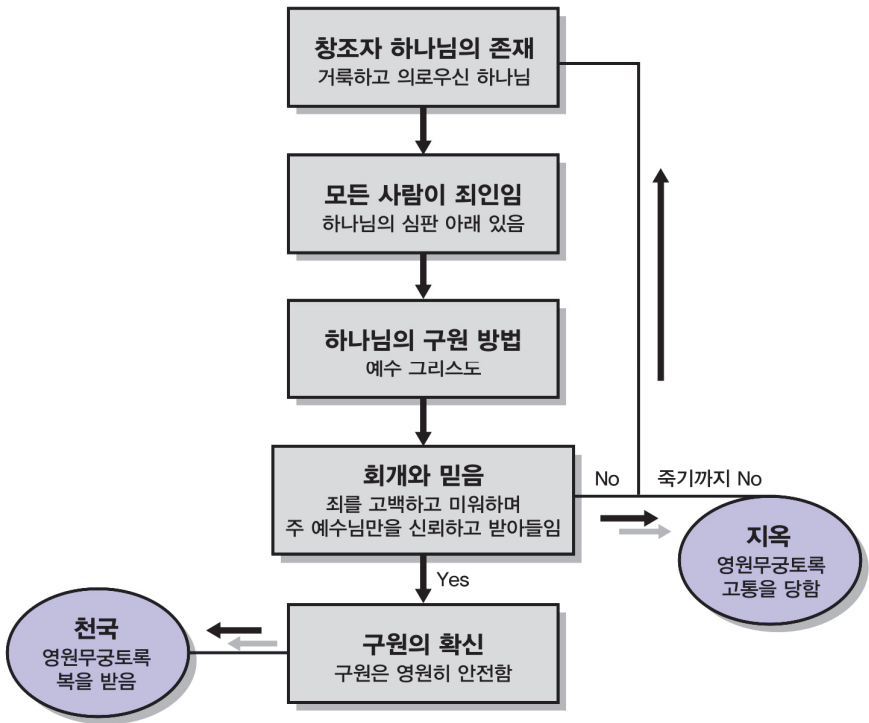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

사람

죄의
구렁텅이

하나님

- (d)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벧전1:5).
- (e) 이제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 없이 너희를 제시하실 수 있는 분(유24)
- (f)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마28:19-20).





1. 구원의 필요성

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그것들을 만든 존재, 즉 메이커가 있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펜, 의자, 자동차, 책 등이 모두 메이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메이커는 자기가 만든 물건이 설계대로 만들어졌는지 판단한 뒤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물건은 따로 분리하여 폐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메이커가 있습니다. 물건도 메이커가 있는데 하물며 물건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고등 존재인 사람이 무(無)에서 그냥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만든 메이커 역시 자기가 만든 사람이 자신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판단합니다(행17:31; 히9:27). 이 같은 심판에서 부적격자로 드러난 사람은 메이커가 폐기합니다. 성경은 이 같은 메이커를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사람이 심판받은 뒤 폐기되는 것을 ‘영원토록 지옥 불 속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계20:11-15).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폐기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나를 만든 메이커가 있는가, 없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 구원의 방해물

사람과 물건 간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곧 사람에게에는 자유 의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자신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부적격자로 판정하시는 근거가 죄라고 말하는데 성경적 의미의 죄란 ‘목표에서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며 사람이 자신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 의지를 이용하여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분의 목적에서 벗어나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롬3:23).

첫 사람 아담에게서 시작된 이 죄의 독은 사람의 핏줄을 타고 전 인류에게 퍼졌습니다(창5:3; 롬3:10). 그 결과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아담과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 사망이 임했고(롬6:23)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결국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지옥 불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티끌만큼의 죄도 차마 보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합1:13). 그러므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과연 나는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 구원 계획

그러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공장에서 갓 만들어진 펜이 하나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 펜은 쓰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설사 이 펜이 자기가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해도 그것이 자기를 고치거나 혹은 그 옆의 펜이 그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같은 범주에 속한 것들이 서로의 잘못을 인식할 수 있다 해도 고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앓고 있는 죄라는 병 역시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 즉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마더 테레사, 교황, 교주, 목사, 사제 등이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펜을 설계한 메이커만이 펜을 고칠 수 있듯이, 사람과 차원이 다른 외부의 고등 설계자, 즉 사람의 설계자인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의 독을 제거함으로써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행4:12).

4. 구원 방법

사람의 죄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처녀 탄생을 통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온 인류를 대신하는 완전한 희생 예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마1:23; 고후5:21; 히9:26).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뜨거운 지옥 불 심판을 다 감당한 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몸으로 부활하셔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기나 햇빛같이 사람에게 필수불가결한 모든 것을 거저 주십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람이 선행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 역시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거저 주십니다(롬5: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 사역을 믿기만 하면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구원받습니다(엡2:8-9).

5. 구원의 확신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그 사람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곧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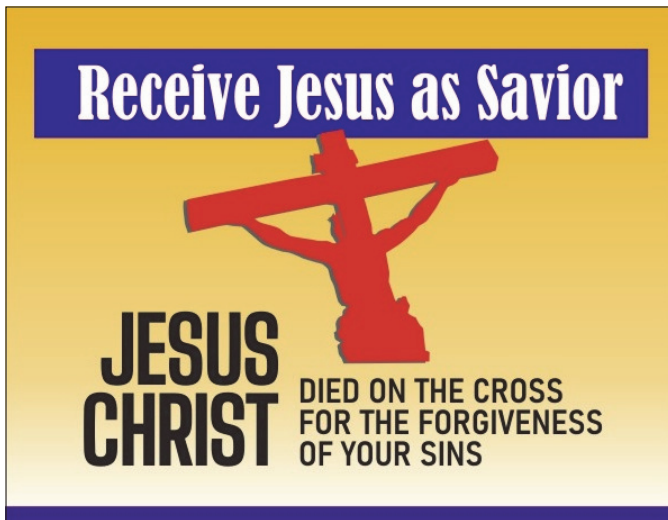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말기 바랍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 다. 창조자 하나님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기에 우리는 그것이 진리임을 믿습니다(요14:6).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롬6:23).

6. 구원 초청

인생은 마치 기차역을 향해 달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단 몇 시간을 아끼려고 열차 시간에 늦지 않게 부지런히 역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이라는 무궁한 시간을 아끼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언제 당신에게 닥칠지 모릅니다(히3:13). 나이와 직업과 성별과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오늘 그 시간이 당신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방법을 그대로 믿고 수용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당신에게 일어납니다(벧전1:23).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값없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미루지 말고 오늘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원리

판정요청

모든 물건에는 그것들을 만든 존재 즉 메이커가 있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펜, 의자, 자동차, 책 등이 모두 메이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메이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물건을 판단하여 폐기 처분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메이커가 있습니다. 물건도 메이커가 있는데 하물며 물건을 설계하는 고등 존재인 사람이 흠에서 그냥 생길 수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만든 메이커가 그 사람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때가 있습니다(행17:31; 히9:27). 이 같은 심판에서 부적격자로 드러난 사람은 메이커가 폐기시킵니다. 성경은 이 같은 메이커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폐기 처분되는 것을 '유황 불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계20:10). 그러므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내게 메이커가 있는가, 없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양해물

사람과 물건의 차이는 사람에게 자유 의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적격자로 판정내리는 근거가 죄라고 말하는데 근본적으로 죄란 '목적에서 벗어나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며 사람이 자신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 의지를 이용하여 고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그분의 목적에서 벗어나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롬3:23). 첫 사람 아담에게서 시작된 이 죄라는 독은 사람의 핏줄을 타고 전 인류에게 퍼졌습니다(창5:3; 롬3:10).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따라 그 이후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인 사망이 왔고(롬6:23)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지옥 불속에서 자발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티끌만큼의 죄도 차마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렘1:13). 그러므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과연 나는 죄인인가, 아닌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계획

철사 펜 공장에서 나오는 펜이 자기가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해도 자기 자신이나 혹은 그 옆의 펜이 그 펜을 고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죄의 병은 똑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 즉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마리아, 마더 테레사 등이 고칠 수 없습니다. 펜을 설계한 메이커가 펜을 고칠 수 있듯이 사람의 설계자인 하나님 즉 사람과 차이가 다른 외부의 존재만이 사람의 죄의 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행4:12).

바탕

사람의 죄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은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처녀 탄생을 통해 죄 없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 예물이 되어 단 한 번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 시키셨습니다(마1:23; 고후5:21; 히9:26).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뜨거운 지옥 불의 심판을 다 담당하신 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몸으로 부활하셔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기가 햇빛같이 사람에게 필수불가결한 모든 것을 거저 주십니다. 이런 것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선행이나 노력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 역시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어집니다(롬5: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 사역을 믿기만 하면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습니다(엡2:8,9).

확신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그 사람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 곧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말기 바랍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창조 주이신 분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요14:6).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롬6:23).

초청

인생은 마치 기차역을 향해 달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단 몇 시간을 아끼려고 열차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역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이라는 무궁한 시간을 아끼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언제 도착할 모릅니다(히3:13). 나이와 직업과 성별과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오늘 그 시간이 도착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베푸시는 방법을 그대로 믿고 수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태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벧전1:23).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누구나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값 없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 나오기 바랍니다!

개인 전도의 가능성

Every Believer Can Be A Soul Winner

1. 누구나 전도(구령)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령/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2. 어디에서나 전도할 수 있다

어떤 곳에서는 복음을 선포할 수 없지만 영혼 구원/전도는 집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3. 어느 때나 전도할 수 있다

교회 봉사나 예배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만 개개인의 구령은 일년 삼백육십오일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4. 모든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

아픈 사람, 밤에 근무하는 사람, 집에만 있어야 하는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교회에 올 수 없으며 또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령/전도자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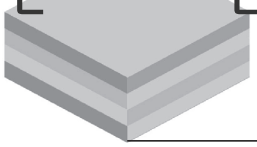
5. 목표를 두고 전도할 수 있다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 교회 예배는 개개인의 필요를 다 채워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구령은 개개인에 대해 관심을 표명해서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켜 줍니다.

6. 개인 전도는 큰 결과를 가져온다

큰 교회들은 개인 구령/전도자들의 구령에 의해 세워집니다. 만일 100명의 회원이 한 달에 한 명을 구령하기로 하면 다음달에는 200명이 모이고 일 년이 지나면 1,200명의 회심자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세대가 우리 세대를 구원해야 합니다.

전도자의 조건



Requirements of Soul Winners

1. 전도자는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요3:3).

2. 전도자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3. 전도자는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딤후2:21).

4. 전도자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마4:19)

5. 전도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치매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행4:31).

6. 전도자는 헌신된 사람이어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갈2:20).

7. 전도자는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행20:24).





1.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수확 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마9:37-38).

2. 명령이 확실하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막16:15-16).

3. 시간이 없다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하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요9:4).

4. 지금 이 시간에도 영혼들이 멸망하고 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여, 내게 공활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매(눅16:23-24)

5. 지금 해야 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너 달이 남아 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온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요4:35).

6. 주님께서 호소하신다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므로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니(사6:8)

7. 전도하지 않는 죄가 심히 크다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하는 말을 하여 그가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네 손에서 요구하리라(겔3:18).

8. 전도의 사명이 긴급하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딤후4:2).

9. 전도의 기쁨이 대단히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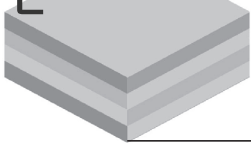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눅15:10).

10. 전도의 보상이 영원하다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단12:3).



저도자의 주의 사항



Precautions of A Soul Winner

1. 반드시 조심해야 할 사항

- (a) 입이나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한다.
- (b) 구령 상대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다.
- (c) 다른 사람들 앞에서 상담자의 문제를 들추어서 무안하게 만들지 않는다.
- (d) 구원 문제에 대해서만 주의를 집중하고 부차적인 문제에 빠져들지 않는다.
- (e) 상담자의 종교나 의견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함으로써 구령 상대가 의기소침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
- (f) 결코 논쟁하지 않는다. 상담자의 말에 동의하거나 혹은 “잠시 후에 그 문제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다.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상담자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와 자세를 습득한다.
- (g) 상담자가 지겨워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간 내에 끝을 낸다. 너무 집요하게 덤벼들면 오히려 상담자가 당신을 미워할 수 있다.

네 이웃의 집에서 네 발을 뒤로 물리라. 그가 네게 싫증이 나서 너를 미워할까 염려하노라(잠25:17).

2.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a) 인내한다.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 수도 있으니(딤후2:24-25)

- (b) 연구하여 준비한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c) 상황에 적응한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으려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으려 함이며...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해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고전9:19-23).

(d) 기도한다.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되었나니(골4:3)

(e) 성령님을 의지한다.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의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고전2:4-5).

(f) 꾸준히 견딘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들고 나가면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 곡식 단들을 가지고 다시 오리로다(시126:5-6).





구원론을 가르치면서 매년 저는 학생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질문을 던집니다.⁴⁾ 저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상상해 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죽음의 문턱에 놓여 있는 불신자를 방문하기 위해 병원에 와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단 스물다섯 단어를 말해서 복음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스물다섯째 단어가 끝나면 그 환자는 죽게 됩니다. 당신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설명할 것입니까?

과연 학생들은 이처럼 복음을 간결하게 표현함으로써 숨이 끊어져 가는 그 사람이 올바르게 반응하기만 한다면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학생들은 복음을 완전히 이해해서 그렇게 짧은 몇 마디 안에 구원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도 학생들이 풀어야 했던 그 문제로 돌아가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막16:15).

그렇다면 이제 다음의 세 가지 사항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첫째, 복음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둘째, 복음은 무엇인가?

셋째,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

1. 복음이 아닌 것들

1. 세계 교회 협의회(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복음은 언제나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투쟁에 참여할 책임을 포함하며 인간의 전체성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고발할 의무를 포함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Christianity Today』, 1972년 1월 2일, p. 12). 과연 이것이 복음입니까?

수년 전 복음 전도자인 포드(Leighton Ford)는 아이오와주의 데모인에서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청중들에게 ‘두 발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라고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드가 전하는 복음은 WCC의 입장과 흡사한 것으로, 복음은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사회의 구원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복음입니까?

4) 출처: <Do We Really Know the Gospel?> by Manfred Kober

2. 미국의 수정 교회를 담당하던 로버트 쉐러(Robert Schuller) 목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수치에서 영광으로, 자기 회의와 자기 정죄로부터 자기 확신과 자기 긍정으로 나가는 구원 메시지로 선포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쉐러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기 존중의 신학으로 선포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자기 존중: 새로운 종교 개혁』(Self-Esteem: The New Reformation) pp. 47, 161). 과연 이것이 복음입니까?

3.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담당하는 존 맥아더(John MacArthur) 목사는 자신의 논쟁적인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갈보리로 초청하는 것은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대로 인지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신다’(Lordship)는 전제하에서 제자가 되도록 초청하는 것이다(p. 21)…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복음은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부르심이 었다(p. 21)…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의 본질은 자아를 철저히 포기하는 것과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다(p. 153)〔예수 그리스도의 복음』(The Gospel According to Jesus).” 과연 이것이 복음입니까?¹⁾

2.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Gospel)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유앙겔리온’(Euangelion)은 ‘좋은 소식’(good news)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무엇에 관한 좋은 소식인가?”라는 물음이 뒤따릅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이라는 용어를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복음은 사람들에 관한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흔들림 없는 믿음에 대한 ‘좋은 소식’, 즉 글자 그대로 ‘가스펠’(gospel)을 가져왔다고 적고 있습니다.

2. 신약 성경은 더 나아가서 ‘왕국의 복음’(Gospel of the kingdom)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주로 ‘왕국의 복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마3:1-2; 4:17; 10:5-7 등). 이것은 메시아가 유대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늘로부터 땅에 임하는 그 왕국에 대한 그분의 참된 제안을 공적으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왕국의 복음은 천년왕국 곧 다윗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7년 환란기에 다시 한 번은 세상에 선포될 것입니다(마24:14).

3.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셋째 용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Gospel of the grace of God)입니다(행20:24). 이 복음은 서신서들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1) 맥아더 목사는 대단히 훌륭한 분이지만 극단적 칼빈주의, ‘로드십 구원’ 등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긋난 것을 가르치므로 늘 조심해야 한다.

있으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바울이 선포한 복음, 즉 모든 신자들이 선포해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느 저자가 간결하게 표현했듯이 ‘좋은 소식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복음 전도: 성경적 접근」(*Evangelism: A Biblical Approach*), Cocoris, p. 60).

라이리(C. Ryrie)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나오는 복음의 요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익한 분석을 했습니다.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좋은 소식이다. 그분께서 죽으셨고 그분께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다. 그리스도께서 묻힌 사실은 그분의 죽음이 사실임을 입증한다...그분께서는 실제로 죽으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다...부활의 증인들의 목록은 그분의 부활의 사실성을 입증한다(「이토록 큰 구원」(*So Great Salvation*) p. 39).

그렇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 즉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며 이 복음에서 그분께서는 죄인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제안하십니다. 죄인은 단순히 이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행16:31). 그러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그것에 속한 모든 복을 값없이 허락해 주십니다(엡1:3).



3. 어떻게 복음을 소개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죄인의 구원에 있어서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WCC나 포드(Leighton Ford)처럼 복음을 ‘죄인을 대속하는 구원의 복음’과 ‘사회를 개혁하는 사회 복음’으로 나눠서는 안 됩니다. 또한 솔리더럼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구하는 인간의 죄에 대한 개념을 복음으로부터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맥아더처럼 구원과 성화를 혼동하고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신다’(Lordship of Christ)는 사실에 절대복종하는 것을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 제시했던 신학적 물음으로 다시 한 번 돌아가 봅시다. 이 질문은 원래 라이리 박사의 신학 과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똑똑한 몇몇 학생들은 보통 이 물음의 대답으로 스물다섯 단어로 표현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답에는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질문은 자신의 말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답을 제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당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분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은 좋은 대답이긴 하지만 썩 훌륭한 대답은 아닙니다. 이 대답에서 부족한 것은 명확한 복음 제시에 필요한 요소들 중 첫째 요소입니다.

완전하면서도 간결하게 복음을 제시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문제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예비이며 셋째는 개인의 구원 획득입니다. 첫째로, 사람의 문제에 대한 자각이 없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여려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자신이 길을 잃고 헤매며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돌이켜야 합니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예비하신 것에 대해 들어야 합니다. ‘나쁜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잃어버려진 상태에 있고 자기 자신의 공로나 행위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죄들로 인한 형벌을 자기 위에 몸소 짊어진 ‘죄인들의 대속 헌물’이십니다. 여기서 대속(代贖)이란 대신 속죄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음을 아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히2:9). 하지만 그 구원자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결코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받을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인은 개인적으로 이 구원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모두에게 값없이 제시된 구원의 선물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 제시에 필요한 이 세 가지 기본 요소에 비추어서 학생들의 답안지를 분석한 후에 저는 ‘사람의 문제’와 ‘하나님의 예비’와 ‘개인적인 획득’을 모두 포함시키면서 어떻게 스물다섯 단어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지 학생들에게 보여 줍니다.

친구여,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그분만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을 영원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분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Friend, You have sinned. But Christ died for sinners and rose again. Trust Him alone and He will save you eternally. Do it 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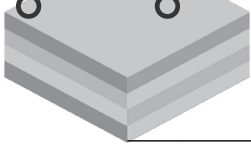
간략하지만 이것은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제시할 때 마땅히 포함해야 할 내용과 초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명확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 신학 교육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앤더슨 경(Sir Robert Anderson)은 복음의 증언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자격 요건에 대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복음 사역을 맡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바는 그들이 세련되고 잘 교육받은 신사들이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들이 천박하거나 무식한 촌뜨기이어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들이 신학 교리에 능통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교리에 무지해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재기 넘치는 사람이거나 웅변에 뛰어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예 소질이 없거나 지루하고 따분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분께서 찾는 사람은 단지 그리스도의 권능을 담을 수 있는 적당한 도구 곧 그분께서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자신의 보화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빈 질그릇이다(『복음과 복음사역』(*The Gospel and Its Ministry*), pp. 6-7).

우리의 책임은 모든 창조물에게 구원자를 알려 주고 죄들의 용서와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일을 날마다 더욱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구원을 선포하는 일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하실 것과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가 사람에게 꼭 맞게 되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지적인 존재',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매우 과학적이고도 정교하게 지구를 만드셨으므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의 발췌문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보여 줍니다.

누구라도 지구의 크기를 조사해 보면 곧바로 지구의 부피와 크기가 매우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지구의 지름이 12,800km가 아니라 11,520km라면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권 맨틀의 감소로 인해 지구 전체가 얼음과 눈으로 뒤덮여 버렸을 것입니다. 지구의 크기가 현재의 크기보다 10%만 크거나 작았더라도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생물체 중 그 어떤 것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지구의 기온이 현재보다 2-3°C만 올라가도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내려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말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의 도시 문명은 다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 앞의 이런 도시들은 다 물속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현재 북극성을 향하고 있는 지구의 축은 수직에서 23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구의 공전과 적절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기울기 때문에 여름에는 해가 북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겨울에는 남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온화한 지방에 사계절이 생깁니다. 만일 이 기울기가 없다면 해가 항상 적도 위에 있게 될 것이고 사계절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작물을 재배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면적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지구가 이 각도 말고 다른 각도로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는 현재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여덟 가지 살인적인 광선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기적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기권 위에 오존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표면에서 약 64km 상공(성층권)에 있는 3-4mm 두께의 오존층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이 지구상 어디에서도 어떤 생명체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전체 우주와 비교할 때 바다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합니다. 이 망망한 우주 속에서 지구처럼 바다가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액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계에서도 극히 예외적입니다. 우주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은 별들과 같이 불타는 가스로 구성되어 있거나 우주 공간의 깊은 심연과 같이 얼어붙은 고체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놀랍고도 정교하게 온 우주는 회전하고 있으며 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정교한 기계처럼 정확하게 태양 둘레를 회전하고 있음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365일 5시간 48분 48초입니다. 이 순환 회로 속에서 지구는 거의 변화 없이 일정합니다. 무한하신 지혜의 하나님 말고는 이렇게 완벽하고도 정교하게 지구와 다른 별들을 운행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 세계를 잘 관찰하면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神格)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롬1:20).

모든 설계에 설계자가 있으며 모든 법에 입법자가 있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창1:1)는 말씀은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구성 요소의 기원을 설명해 주는 말씀으로서 가장 뛰어나고 진보된 과학적 선언입니다. [기쉬 박사(Duane T. Gish, Ph.D.), 생물학,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 모래 위의 발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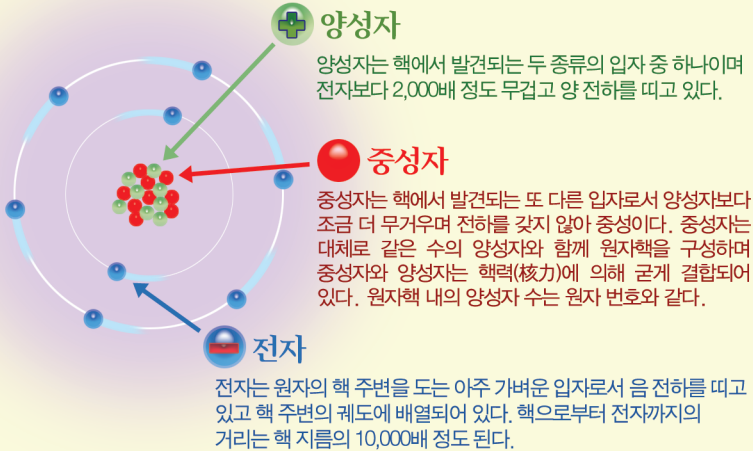
한번은 무신론자인 프랑스 과학자가 아랍인 가이드와 함께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랍인은 하나님과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길을 잘 모르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바른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과학자는 이런 행동이 매우 못마땅하고 짜증이 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시오?” 그러자 그 아랍인이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젯밤 어둠 속에서 우리 텐트 옆을 지나간 게 낙타가 아니라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자 그 무신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야 모래 위의 발자국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니요.” 그러자 아랍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 속에 찍혀 있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봅니다. 태양, 달, 별들이 그분의 발자국입니다. 자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 주전 2000년경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일러 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들이 네게 밝히 알려 주리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의 손이 이것을 이루셨음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욥12:7-10).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펼치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물들을 자신의 뺨뺨한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욥26:7-8).

창조의 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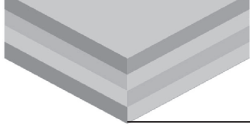


원자는 화학 원소로서의 특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도달할 수 있는 물질의 기본적인 최소 입자를 말하는데 각각의 원자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균형을 유지한다. 양 전하를 띤 양성자의 숫자와 음 전하를 띤 전자의 숫자가 같기 때문이다. 원자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핵에서 발견되는 핵력이라는 응집력이다. 원자의 핵에서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는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창조의 기적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기초 물리에서 배우듯이 같은 전하를 띤 입자들이 서로 가까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밀어낸다. 그런데 원자의 핵에서 창조주께서는 전혀 다른 법으로 이 같은 현상을 억제하고 계신다. 다시 말해 같은 전하를 가진 양성자들이 핵에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알 수 없는 신비의 엄청난 응집력에 의해 굳게 결합되어 있다. 이것은 원자에 대한 가장 신비한 사실 중 하나로서 '우주의 근본적인 신비'라 불린다. 만일 이런 현상이 없다면 온 세상 만물은 다 해체될 수밖에 없다.

온 우주를 지탱하는 시멘트 같은 힘은 중력이다. 원자를 함께 모으는 것은 전자기적인 견인력이다. 그러나 원자의 핵을 다 같이 모으는 힘은 현존하는 물질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모두 무시하는 신비의 힘이다. 이 힘은 지금까지 사람이 이해한 다른 모든 힘과 다르므로 제대로 그것을 묘사할 방법이 없다(Robert E. Marshak, "PIONS", American Scientific

창조주의 큰 손에 의해 마치 큰 스프링처럼 둘둘 말려 압축되어 있는 이 엄청난 에너지는 보통 핵 에너지라 불리며 이 에너지는 위력이 대단해서 원자 폭탄 하나가 수천 톤의 TNT에 해당하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전자 현미경으로 겨우 관찰할 수 있는 이 작은 원자에 이 같은 신비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과연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겼다는 진화론의 우화를 믿을 수 있을까? 누구라도 원자의 핵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안에 엄청난 지적 설계가 들어 있고 창조주의 놀라운 힘이 들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처음에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시다(창 1:1).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들고 있기에(히 1:3) 원소들이 붕괴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듯이 주님의 날이 오면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타서 만물이 해체될 것이다(베후 3:10-11). 우리 주님은 자신의 재림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베후 3:9). 창조주의 참오심의 끝이 오기 전에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죄와 죄인



Sin and Sinners

사람이 선을 행하려 할 때 악도 함께 거한다는 사실은 성경이나 그 밖의 도덕 기준을 찾아보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심과 행동 사이에 그리고 좀 더 나은 판단과 자연적인 기질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도덕적 부조화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사려 깊고 조심스러운 관찰자라면 누구나 짐승과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짐승들은 악을 행하려는 성향, 즉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성향에 대항하여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들은 그것들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목표들로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본능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하고 죄를 지으며 모든 종류의 잘못을 즐기려는 뿌리 깊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려는 것 자체가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입니다.

죄는 이 세상이 안고 있는 피 속의 독입니다. 나쁜 피는 사람의 몸 안에서 두 모습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부적으로는 당뇨병으로, 외부적으로는 염증과 종기와 등창 그리고 궤양 등으로 나타납니다. 전자는 눈에 보이지 않고 한동안 감추어져 있지만 후자는 눈에 흰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죄(sin)와 죄들(sins)의 차이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죄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것으로 죄를 지으려는 성향 내지는 본성입니다. 그리고 죄들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성향 때문에 범하게 되는 죄의 특별한 행위들을 말합니다. 전자, 즉 죄는 당뇨병처럼 내부적으로 감추어져 있으나 후자, 즉 죄들은 종기나 등창처럼 외부로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본질적인 타락 또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지으려는 본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방법은 사람의 마음에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전혀 없도록 새 성품을 심어 놓는 것이었는데 이 새 성품은 죄를 지으려 하거나 특별한 행위들을 범하려는 어떠한 욕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타락이란 사람의 본성에 선한 것이 전혀 없어서 사람이 결코 친절하지도 않고 애정을 느끼지도 않으며 너그럽고 사랑할 만하지도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 마음의 본성이 자연적으로 악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화를 내는 것은 죄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인이라면 살인이나 도둑질 또는 간음하는

사람의 상태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렘13:23).

보소서, 내가 불뿔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 다(시51:5).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롬3:10)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그의 몸에는 첫 사람 아담의 피가 흐르므로 그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즉 사람은 죄를 지으므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 그러므로 '모태 신앙'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고 '모태 죄인'이라고 해야 맞다. 사람 안에는 본성적으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롬7:18). 성경은 본성에 속한 사람 즉 자연인을 가리켜 '자각이 어두워진 사람'이라고 말한다(엡4:18). 그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일을 인식할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전2:14).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엡2:3) 하나님과 원수지간이고 따라서 결코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없다(롬8:7-8). 그의 마음은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여 부패되어 있다(렘 17:9).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 등이다(막7:21-22). 영적으로 볼 때 그는 죄와 범법으로 인해 죽은 존재이다(엡2:1).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듯이 자연인도 초자연적인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다(렘13:23). 이런 상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일이 구원의 첫걸음이다.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그보다 낮은 단계에 있는 세상의 어떤 창조물도 그를 변화시킬 수 없다. 오직 그를 지으신 분 곧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를 변화시켜 새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후5:17).

사람들처럼 어떤 특별한 죄들을 범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죄를 지으려는 본성을 가진 사람 모두를 가리킵니다.

● 죄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전갈이 강을 건너기 위해 거북이에게 다가가서 등에 태워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거북이는 “미쳤나?” 하고 펄쩍 뛰었습니다. “내가 수영하는 동안 네가 나를 쏘면 나는 물에 빠져 죽잖아.” 그러자 전갈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쏘 리가 있냐? 네가 죽으면 나도 같이 죽게 되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이런 논리적인 설득에 거북이는 “맞아. 그렇군.” 하고는 등에 전갈을 태우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강의 중간에 왔을 때 전갈은 그만 강한 침으로 거북이를 쏘아 버렸고 둘은 같이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때 거북이가 가라앉으면서 전갈에게 힘없이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왜 쏘지?” 그러자 전갈은 다음과 같이 슬프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논리와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것이 내 본성이거든.”

● 죄인은 영적으로 눈먼 사람입니다

어느 목사가 영국의 글래스고우에서 열심히 옥외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설교의 결론을 내릴 즈음에 어떤 불신자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 양반, 나는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소. 하나님과 그리스도도 믿지 않소. 나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없소이다.” 그러자 옆에 검은 안경을 낀 한 눈먼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근에 클라이드 강이 있지만 나는 믿지 않소. 여기 사람들이 많이 서 있지만 나는 믿지 않소. 나는 그들을 본 적이 없소. 나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입니다.” 이 눈먼 사람이 말한 바가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며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 죄인은 죄의 무게를 느낄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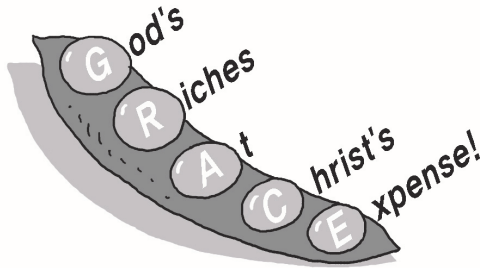
출랑거리는 한 청년이 목사에게 다가와 비꼬듯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죄 짐을 지고 다닌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도대체 아무 짐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죄 짐은 얼마나 됩니까? 10킬로그램쯤 됩니까? 아니면 80킬로그램쯤 됩니까?” 그러자 목사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죽은 사람 위에도 400킬로그램짜리 짐을 올려놓으면 그 시체가 무게를 느낄까요?” “아뇨, 죽은 사람은 무게를 못 느끼지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죄의 무게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알 수도 없으며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What Is Grace?

은혜는 중요한 단어로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를 뜻합니다. 이 은혜는 종종 '합당치 못한 자가 받는 호의'라 불리는데 이는 하나님의 호의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당치 않은 친절, 과분한 친절, 받을 가치가 없는데도 주어지는 친절'로 정의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친절은 결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은 하나님의 부요함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제시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은혜, 즉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선물에 익숙한 아이들보다 일을 해서 보수를 받는 데 더 익숙한 어른들이 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도하다가 은혜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임을 설명해야 할 때에 다음과 같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저를 위해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제가 선생님께 백만 원을 드리면 그것이 은혜입니까, 보수입니까?” 상대방은 분명히 그것이 보수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곧 이렇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아무 일을 안 했는데 제가 백만 원을 드리면 그것이 은혜입니까, 보수입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그것이 은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도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즉 은혜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다음의 말씀을 보여 주시면 더 확실할 것입니다.

성경기록이 무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겨지지만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의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가 있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가 없다고 여기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롬4:3-8).

상대방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도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거저 받을 수 있습니까? 저도 무엇인가를 조금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다 거저 주십니다. 공기, 물, 햇빛 등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다 거저 주십니다. 부자나 학자나 귀족만이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즉 영원한 생명 또한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너무나 고귀하고 비싼 것이어서 사람이 일을 해서 혹은 값을 치르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값을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선생님과 저는 그저 그것을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영생은 거저 얻는 것이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심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예화는 은혜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한 명의 삶에 찾아온 신앙생활의 전환점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미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아주 열심이었으나 대부분의 청소년이 그렇듯이 늘 신앙생활의 기쁨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예배 후 초청 시간이면 자주 강대상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곤 했다.

한번은 주일 저녁 예배 때 외부 강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 학생은 그날도 초청 시간에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갔다. 이번에 나는 그와 함께 기도한 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에는 꼭 해 보겠다.”고 자기 결심을 이야기할 때 그의 얼굴은 무척이나 진지하게 보였다. 그러더니 그는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목사님, 또 실패하면 어찌죠? 제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의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스티브, 나는 너를 아주 잘 알고 있단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너를 잘 알 거다. 그래서 말인데 나는 네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너는 분명히 실패할 것이고 넘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지?”

이 말에 그는 충격을 받은 듯이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내게서 실패의 확실한 보장이 아니라 꼭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원했던 것이다. 그가 대답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나는 그가 “그것이 무슨 문제지?”하고 내가 물어본 것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윽고 그는 무엇인가 깨달았다는 듯이 아주 천천히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음... 목사님,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갑자기 깨달아졌다고나 할까요? 그래요. 저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것이고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내 그의 미소는 온 얼굴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실패하거나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고 묻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약하는 것이며 또 자격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베푸시고자 하는 그분의 호의, 즉 내 힘이나 선행과 관계없이 그분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왜곡하는 일이 된다. 만일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게 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필리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났는지도 모르고 잡혀서 죽을까 봐 30년 동안이나 정글 속에서 숨어 지내다가 구조를 받은 한 일본 사람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났는지 몰랐기 때문에 공포와 위험 속에서 떨며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나중에 구출되어 전쟁이 끝난 지 벌써 30년이나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는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모른 채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셨음을 알기만 하면 곧바로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선포하시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자신에게 나오면 값없이 거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모르면 그 큰 은혜가 그 사람에게에는 전혀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은혜를 전파하는 자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롬10:15).

수확할 때가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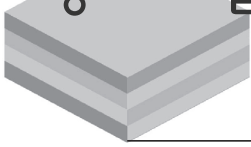
Harvest Is Near



지갑을 꺼내서 그 안에 카드가 몇 개나 들어 있는지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 카드, 현금 카드, 주민 등록증, 사원증, 각종 회사 보너스 카드 등등. 또한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 보험 증서, 은행 계좌, 집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홈페이지 주소, 각종 비밀번호 등 외워야 할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코크레인 교수(Prof. Cochrane)는 이런 모든 정보가 스마트카드에 하나의 실리콘 칩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직업, 학력, 병력 등도 모두 그 칩 안에 수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칩에다 단파 무선 송수신기를 추가하고 당신의 피부 밑에 그것을 이식하면 더 이상 그런 정보를 외우거나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관도, 은행도, 이민국도 그저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컴퓨터가 그 안의 정보를 읽고 다 처리해 줍니다. 현금 인출기나 쇼핑센터에서도 컴퓨터가 정보를 읽고 모든 작업을 수행하므로 계산대 앞에 가서 길게 줄을 설 필요도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크레인 교수는 10년 내에 이런 일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합니다(1998년 3월 26일, 싱가포르의 「The Straits Times」신문 커버스토리에서).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계13:16-17).

어떻게 대답할까요?



How Can I Answer?

구령/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핑계와 질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들은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상황에 따라 적절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경 말씀들입니다. 제목과 그 내용을 확인해 두셨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대하여	42
죄에 대하여	48
지옥에 대하여	51
대속에 대하여	53
침례에 대하여	56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58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9
인생이란	59
타락한 사람에 대하여	60
부활이 있습니까?	60
심판이 있습니까?	61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61
성경대로 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62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62
저는 선한 사람입니다	63
저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63
먼저 선한 사람이 된 뒤에 믿겠습니다	64
모태 신앙입니다	64
교회의 회원입니다	64
교회에 출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65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받아 주실까요?	65
나중에 믿겠습니다	65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66

믿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67
믿을 수가 없습니다	67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67
세상 친구들을 버리면 그들이 박해할 것입니다	68
세상 쾌락이 더 좋습니다	69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위선자들입니다	69
예수님을 믿으면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69

● 구원에 대하여

◆ 구원과 관련된 표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구원받는다 - 행11:14; 행16:31; 고전1:18; 엡2:8; 계21:24
2. 대속(구속)받는다 - 롬3:24; 갈3:13; 엡1:7; 골1:14; 딤후2:14; 히9:12; 벧전1:18
3. 죄들을 용서받는다 - 행13:38; 행26:18; 엡1:7; 골1:13-14
4. 의롭다고 여겨진다 - 행13:39; 갈2:16; 롬3:24-26; 롬5:1, 9; 딤후3:7
5. 다시 태어난다(거듭난다) - 요3:3-7; 벧전1:3, 23; 딤후3:5
6. 천국에 간다 - 마8:11; 마18:3; 딤후4:18; 벧전1:3-4; 고후12:2-4

◆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습니까?

1. 진노로부터 - 롬5:9; 요3:36; 롬2:5; 엡2:3; 골3:6; 살전1:10; 살전5:9; 히10:27
2. 사탄의 권세로부터 - 행26:18
3.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 갈1:4

◆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딤후2:14).
2.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벧전2:9).
3. [하나님께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 주셨고(엡1:3-6)

◆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1. 그분[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1:12)
2.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3. 성경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롬10:11)
4.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10:13).
5.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요일4:15).
6. 모든 대언자들도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행10:43).
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을 취할지니라(계 22:17).

◆ 구원은 선물입니다

1. 죄의 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롬6:23).
2.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2:8-9).
3. 그러나 그 저저 주시는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기 때문이라(롬5:15).

◆ 구원은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1.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롬3:20).
2.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갈 3:11).

3.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딤후 3:5)
4.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딤후1:9).
5.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갈2:16).
6.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갈5:4).
7.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義)가 율법에 의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갈2:21).
8.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롬4:5).
9. 만일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롬11:6).
10.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엡2:8).
11.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롬3:28).

◆ 구원의 다른 길은 없습니까?

1.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에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행4:12).
2.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요14:6).

◆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요6:37).
2.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10:13).
3.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1:12)
4.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므로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행16:30-31)
5.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갈 3:26)
6.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요일4:15).
7.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10:9-10).
8.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고전15:2).

◆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립니까?

1.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빌4:3).
2.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롬8:33)
3.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갈 3:26)
4.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롬8:14)
5.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仲保)하시느니라(롬8:26).
6.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롬8:33-34).

7.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롬 8:15-17)
8.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였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벧전 1:3-4)
9.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2-3).

◆ 구원받은 뒤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1. 구원의 기쁨을 잃게 됨: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시 51:12).
2. 하나님의 보상을 잃게 됨: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같이 받으리라(고전 3:12-15).

◆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무엇입니까?

1.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요 3:36)
2.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 5:24).
3.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요 6:47).
4.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요 일 5:13).
5.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빌 4:3).
6. 이제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 없이 너희를 제시하실 수 있는 분(유24)

7.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엡4:30).
8.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고전1:8).
9.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빌1:6).
10.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출하시고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딤후 4:18).
11.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전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히7:25).
12.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3:3).
13.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요10:28).
14.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13:5).
15.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롬11:29).

◆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1.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데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오? 그분께서 이르셨으니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오?(민23:19)
2.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던 두 개의 변경할 수 없는 것들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히6:18).
3.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딤후 1:2)

● 죄에 대하여

◆ 죄란 무엇입니까?

1.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요일 3:4).
2. 모든 불의가 죄이지만(요일5:17)
3.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 유죄가 되나니(약 2:10)
4.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니 어떤 살인자 속에도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요일3:15).
5.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마5:28).
6.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약4:17).
7. **주께서** 이 여섯 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일곱 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피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악한 일로 치닫는 발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잠6:16-19).
8.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막7:21-23).
9. 그들은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들이요, 뒤에서 헐뜯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업신여기며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이며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는 자들이며 본성의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긍휼이 없는 자들이라(롬 1:29-32).
10.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나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주정뱅이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고전6:9-10).
11.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시기심의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뭉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갈 5:19-21).

12.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다치느니라.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를 내버리라(골3:5-8).
13.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쟁이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의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는데*(딤후1:9-10)
14.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향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계21:8).

◆ 누가 죄인입니까?

1. 주여, 주께서 불법들을 지켜보신다면, 오 주여, 누가 서리이까?(시130:3)
2. 또 주의 종과 함께 심판 자리로 들어가지 마소서. 살아 있는 어떤 자도 주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리이다(시143:2).
3.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전7:20).
4.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사 64:6).
5.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롬3:10-12).
6.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
7.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롬5:12).

◆ 죄와 사망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1.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롬5:12).

◆ 사람의 죄는 빠짐없이 기록됩니다

1.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계20:12).

◆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1.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롬5:12).
2. 죄의 삯은 사망이나(롬6:23)
3.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겔18:20).
4.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고 있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리니(시9:17)
5. 그때에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마 25:41).
6. 오히려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 주리니 곧 죽인 뒤 지옥에 던지는 권능이 있으신 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눅12:5).
7.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계21:8).

◆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1.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사55:7).
2. 주가 말하노라. 타락한 이스라엘아, 너는 돌아오라. 내가 내 분노를 너희에게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많으므로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리라(렘 3:12).

3. 누가 주와 같은 신이니까? 주께서는 불법을 용서하시며 자신의 상속 **뿌성** 중 남은 자의 범법을 지나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공흠을 기뻐하시므로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는데다. 그분께서 다시 돌아서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불법들을 짓밟으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 깊음들 속에 던지시리이다(미7:18-19).
4.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10:16-17).
5.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그분께서 우리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시103:12-13)

● 지옥에 대하여

◆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1. 그러므로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들을 잘라 내어 네게서 던지라.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존(永存)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네게서 던지라.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라(마18:8-9).
2.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지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마13:41-42).
3. 천사들이 나와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그들을 던지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마13:49-50).
4.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막9:44, 46, 48).
5.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막9:49).
6.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내게 공흠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매(눅16:23-24)
7.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향 후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계20:10).

8.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고 있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리니(시9:17)
9. 몸은 죽여도 혼(魂)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마10:28).
10.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니라(히10:30-31).

◆ 왜 지옥이 있습니까?

1. 주는 판단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사30:18)
2.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불법을 볼 수 없으신데(합1:13)
3. 그러므로 주 네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공흠을 베푸시되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사 그들을 멸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보복을 늦추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에 보복하시리라(신7:9-10).
4. 오 주 하나님이여,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오니 친히 자신을 나타내소서(시94:1).
5.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공흠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히10:28-29).
6. 그분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그것에 맞게 갚으시되 자신의 대적들에게는 격노로 갚으시고 자신의 원수들에게는 보복으로 갚으시며 섬들에게도 보복으로 갚으시리라(사59:18).
7.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며 주께서는 보복하시느니라. 주께서는 보복하시고 격노하시나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며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주께서는 분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리라(나1:2-3).
8. 그때에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마25:41).

9.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라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벧후2:4)

◆ **하나님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1.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을 버리고 돌아와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겔18:23)
2.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3:9).
3.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막2:17).

● **대속에 대하여**

◆ **대신 속죄란 무엇입니까?**

1.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사53:6).
2.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5:21).
3.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벧전2:24)
4.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벧전3:18)
5.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해진 때에 확증될 것이며(딤후2:6)
6.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롬 3:25)
7.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5:14-15).
8.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마20:28).

9.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히9:12).
10.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요일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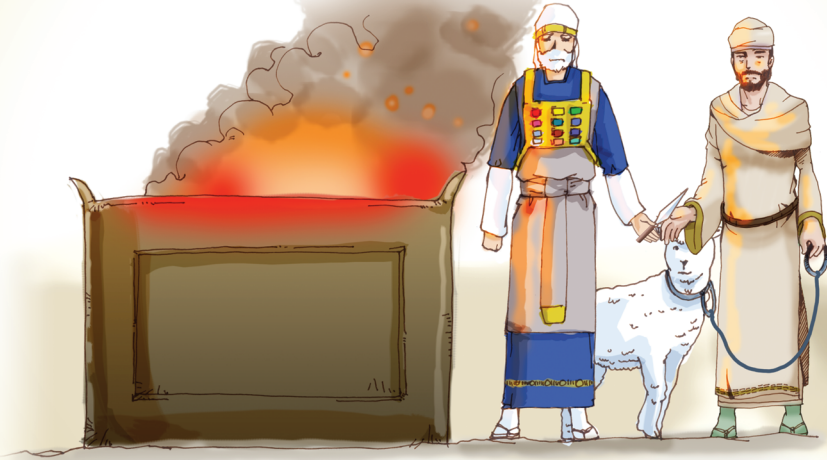
◆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

1.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가 있다고 확증하겠느냐? 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요8:46)
2. 한편 백부장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하더라(눅23:47).
3.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히9:14)
4.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벧전 1:18-19).
5. 그분께서 우리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는데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요일3:5).
6.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히4:15).

◆ 대속의 근거: 그리스도의 피

1.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히9:22).
2.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림으로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레17:11).
3.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히9:13-14)
4.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대신 속죄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하니라(요1:29).

여호와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신다(합1:13). 그러므로 누구라도 죄가 있는 존재는 그분 앞에 설 수 없다. 성경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의 수치를 가리도록 옷을 만들어 주신 이후로(창3:21)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죄 없는 희생물을 대신 죽이고 피를 흘려서 속죄를 이루어야만 함을 보여 준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점을 사형각 교육으로 잘 보여 주셨다. 이스라엘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는 소나 양 등의 짐승을 끌고 성막 앞의 제사장에게로 간다(레1:2-9).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인수하여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칼로 직접 짐승의 목을 찌른다. 그가 칼을 양의 목에 꽂는 순간 양은 비명을 지르고 피가 몸에서 튀어 나온다. 이로써 죄인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피를 흘리는 희생물이 있어야만 함을 뼈저리게 느낀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이 제물을 여러 조각 내서 번제 헌물 제단에 던져 태워야 한다. 이것을 통해 죄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뜨거운 지옥 불의 정죄가 있어서 불의 고통을 받아야 함을 깨닫는다. 이런 일은 또 유월절(출12)과 속죄일(레23:27-32)에도 이루어져서 사람의 죽음을 막기 위해 흠 없는 어린양이나 소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다. 그러나 이런 짐승의 희생은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잠시 덮는 역할을 하며 예표의 기능을 했을 뿐이다(히 10:4).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창조 세계의 외부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희생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지옥의 고통을 다 담당해서 단 한 번에 영원한 대신 속죄를 이루셨다(히9:12). 구약시대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라는 중보자가 있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마27:51; 히6:19-20). 그분께서 단 한 번에 세상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제거하셨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희생물이나 제사장이 필요 없다(히10:18).

언약의 피니라(마26:28).

5.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엡2:13).
6.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요일1:7).
7.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엡1:7).
8.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계5:9)

● 침례에 대하여

◆ 침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1.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
2.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막16:15-16).
3.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매(행10:47-48)

◆ 침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힘과 부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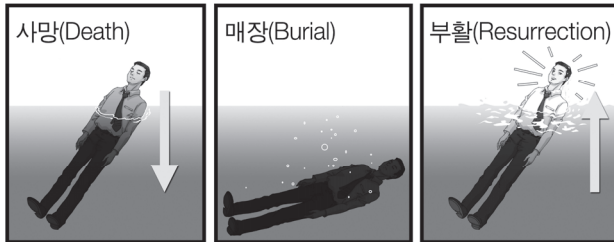
1.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건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롬6:3-5).
2.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골 2:12).

◆ 침례의 대상: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

1.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의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더라(행18:8).
2.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으며(행8:12)
3. 두아디라 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며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시므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그녀와 그녀의 집안사람들이 침례를 받고(행 16:14-15)
4.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행8:37-38).

◆ 침례의 방법: 물속에 잠겨야 함

1.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주변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강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마3:5-6).
2. 예수님께서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마3:16; 막1:10)
3.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행8:38-39)



◆ 침례의 시기: 구원받은 즉시

1.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겨 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행16:33)
2.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행8:37-38).

3. 두아디라 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며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시므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그녀와 그녀의 집안사람들이 침례를 받고(행 16:14-15)

●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1. 이는 그가(아브라함)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기 때문이라(히 11:10, 16).
2.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과도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었는데…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그 도시는 안에서 빛을 비출 해와 달이 필요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 주었고 어린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계21:2, 11, 18, 19, 21, 23).
3.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14:2-3).
4.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 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어느니라(고후 5:1).
5.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고전2:9).
6.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며 또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찍지 아니하리라. 이는 왕좌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 있는

물 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계7:15-17).

●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神格)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롬1:19-20).
2.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시19:1).
3.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시8:3-4)
4. 또 그분(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지정하신 때와 그들의 거주지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혹시 그들이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시니(행17:26-27)
5.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히11:3).
6.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시14:1).

● 인생이란?

1.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나?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약4:14).
2. 이는 그들이 한낱 육체이며 지나가서 다시 오지 아니하는 바람임을 그분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시78:39).
3.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들같이 주 앞에서 나그네요, 체류자이며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 같아서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 없나이다(대상29:15).
4.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꽃과 같이 나와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달아나서 계속 머물지 아니하는데(욘14:1-2)
5.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나(벧전1:24)
6. 우리 햇수의 날들이 칠십 년이요, 강건하면 팔십 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지매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시90:10).

7.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리라.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창3:18-19).
8.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니라(시 103:14).

● 타락한 사람에 대하여

1. 주가 말하노라. 오 타락한 자녀들아, 돌아서라, 내가 너희와 결혼하였느니라(렘 3:14).
2.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고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호14:4)
3.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따라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요일 1:7-10).
4.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요일 2:1-2).
5.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공포를 알고 있기에 사람들을 설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났음을 나는 또한 확신하노라(고후5:10-11).

● 부활이 있습니까?

1.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고전 15:13)
2.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11:25-26)

3.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를 것이며(단12:2)
4.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 즉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행24:15).
5.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는데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요5:28-29).

● 심판이 있습니까?

1.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자가 누구니이까? 그가 무덤의 손에서 자기 혼을 구출하리이까? 셀라(시89:48).
2.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9:27)
3.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계20:12).
4.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하거든* 너희가 여기에 체류할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벧전 1:17).
5.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에* 그들은 주의 얼굴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살후1:7-9).
6.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사망과 지옥이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계20:13-15).

●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1.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딤후3:16-17).
2.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

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벧후 1:20-21).

3.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사40:8).
4.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
5.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느니라(살전2:13).

● 성경대로 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빌1:6).
2. 이제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 없이 너희를 제시하실 수 있는 분 즉 홀로 지혜로우신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유24-25).
3.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갈2:20).

●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전2:14).
2.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않은 채 남아 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그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고후3:14-16).
3.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고후 4:3-4).

4.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시25:14).

● 저는 선한 사람입니다

1.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따라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요일1:10).
2.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시 66:18).
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
4.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눅16:15)
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요8:24).
5.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전7:20).
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사53:6).

● 저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1.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잠16:25).
2.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요14:6).
3.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갈2:16).
4.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다 저주받았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갈3:10).
5.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 유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이제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약 2:10-11).

● 먼저 선한 사람이 된 뒤에 믿겠습니다

1. 오히려 너희는 가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마9:13).
2. 땅의 모든 끝들이여, 나를 바라보고 이로써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यो,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사45:22).
3.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4.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며,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며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며,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눅 18:10-14).

● 모태 신앙입니다

1.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 나이다(시51:5).
2.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1:12)
3.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요3:3).

● 교회의 회원입니다

1.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요3:3).
2.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요14:6).
3.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딤후 3:1-5)

1:16).

● 교회에 출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1.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히10:25).
2. 또 날마다 한마음이 되어 상전 안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행 2:46-47).
3.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약 2:20)

●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받아 주실까요?

1.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 나라(딤후1:15).
2.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롬5:8).
3.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사 1:18).
4. 오히려 너희는 가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마9:13).
5. 나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네 범법들을 지워 버리는 자니 내가 네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사43:25).

● 나중에 믿겠습니다

1.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잠27:1).
2.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나?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약4:14).
3.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사55:6-7).

4.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 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 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고후6:2)
5.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수24:15)
6.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 하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였으나(왕상18:21)
7.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같이 너희 마음을 강퍽하게 하지 말라(시95:7-8).

●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1.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오?(렘 17:9)
2.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히11:6).
3. 오호 목마른 모든 자야, 너희는 물들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사 55:1).
4.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시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사55:6-7).
5.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1:12)
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7.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롬10:9)
8.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10:13).
9.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계 22:17).

● 믿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1.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11:1)
2.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행16:31)
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요6:29)
4.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요6:47).
5.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사12:2).

● 믿을 수가 없습니다

1.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히11:6).
2.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계21:8).
3.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네 행로(行路)들을 지도하시리라(잠 3:5-6).

●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1.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롬3:10-12).
2.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
3.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롬 1:18-23).

4.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롬2:12-15).
5. *그분(하나님)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그분은 불법이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이니시니 의로우시고 옳으시도다*(신32:4).

● **세상 친구들을 버리면 그들이 박해할 것입니다**

1.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마5:11-12).
2.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약4:4).
3.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殿)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6:19-20).
4. *너는 악한 자들을 볼 때에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라지도 말라. 그들의 마음은 멸망을 연구하고 그들의 입술은 악한 일을 말하느니라*(잠 24:1-2).
5.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막8:38).
6.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딤후3:12)

7.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 길을 달려가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떨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히12:1-2).

● 세상 쾌락이 더 좋습니다

1.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요일2:15-17).
2.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10:31).
3. 모든 모양의 악을 삼가라(살전5:22).

●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위선자들입니다

1. 또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도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마 23:10).
2. 땅의 모든 끝들이여, 나를 바라보고 이로써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사45:22).
3.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요21:21-22).
4.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 길을 달려가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히12:1-2).
5.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13:8).

● 예수님을 믿으면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1.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魂)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막8:36-37)

2.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요일2:17).
3.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4.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겠지만 *상형*에게 심는 자는 *상형*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갈6:7-8).
5.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빌3:7-9).



추천 참고도서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티디, 큰글자, 박사, 신약 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번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종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9.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0.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1.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3.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데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비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희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3. 뉴에이지 운동 평가 박영호 저, 기독교문서선교회

4. 뉴에이지 운동(IVP소책자57) D. 그릇하이스 저, 김기영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5. 뉴에이지 운동(비교종교사리즈7) 론 로우즈 저, 은성
6.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울타리 문화교재시리즈6) 낮은울타리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용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재!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벨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월빙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월빙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티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1.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12. 칼빈주의 비평 데이빗 클라우드 외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개역성경 분석

〈표준새번역·공동번역·NIV·NASB 등 포함〉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짐승의 혼 **전도서3:21** 짐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그리스도
예수안에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구절	개역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마17: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 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대! 너희가 과부 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징조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저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저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 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 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 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저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6~7	6 ... 물과 피로 임 하였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 령은 진리니라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증언하시는 분 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 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성경은 7절을 빼고 원래 6절의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음.)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V, NASB 등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팔로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소개



목회자·신대원생
무료 성경 증정



무료 설교
강해 노트



9 788995 158784



03230

ISBN 978-89-951587-8-4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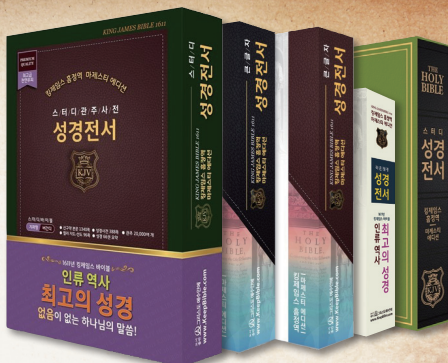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값 8,000원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관주성경 스테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비교 신약 성경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흠정역 성경은 첫 출간 때부터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www.KeepBible.com

NAVER

사랑침례교회

검색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류)에 관한 책 합본.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킵, 버튼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라잡이 역할, 흥정역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책.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천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된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짝슨 외/ 고정민 역

모든 것을 끝내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환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책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리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바른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욱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째,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배리칩 등 종말론 총정리.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빠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킹제임스 흥정역

한영대역/ 스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흥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